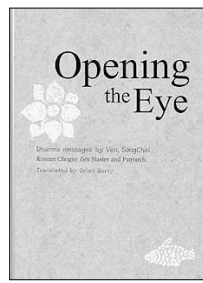


'이 뭐꼬' 영문판 나왔다



Opening the Eye 성철 스님 지음 | 브라이언 베리 옮김 | 김영사 | 9천9백원

한국 현대 불교의 대표적 선승인 성철 스님 (1912~1993)의 법어집 <이 뭐꼬>를 영어로 옮긴 <Opening the Eye>가 나왔다. 2002년 발간된 <이 뭐꼬>는 철저한 수행과 거침없는 경책으로 '가야산 호랑이'라 불렸던 성철 스님이 59년의 수행기간 동안 행했던 법문과 언론 인터뷰 등에서 가려 뽑은 내용을 묶은 책이다. '이 뭐꼬'는 성철 스님이 제자와 대중들에게 자주 주었던 대표적인 화두의 하나로, 스님은 "이 뭐꼬"라는 질문을 계속 하다보면 깨치게 되고 마음의 본래모습을 알 수 있다"고 강조했다.

미국인 브라이언 베리 씨가 맡았다. 1960년대 후반 평화봉사단으로 한국에 온 그는 80년대 말 외국인들을 위한 참선도량인 연등국제선원에서 성철 스님의 법어를 처음 만났다. 이후 90년대 초 성철 스님의 법어집 <자기를 바로 봅시다>를 영역한 <Echoes from Mt. Kaya>를 펴내기도 했다. 김영사는 이 책을 오는 10월 독일 프랑크푸르트 도서전에서 홍보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여수령 기자

새로운 책

■ <유심 2004 여름호> (만해 사상실천선양회 펴냄, 7천원) = 이번 호에서는 '학문 탐구에서 실천의 길로'를 주제로 경희대 문과대 학장 김재홍 교수와 이경시인의 대화를 비롯해 제3회 만해대상 수상자 수상소감과 수상자문을 볼 수 있다. 유안진 시인과 문문학 시인의 '집중조명'도 마련되어 있다.



■ <한국의 놀이와 축제 2> (김흥우 지음, 집문당, 1만5천원) = 동국대 김흥우 교수가 펴내는 '한국의 놀이와 축제' 시리즈 두 번째 권. 1권 <신명과 열광의 현장>에서 전래 놀이와 축제를 소개한데 이어 2권 <도취와 화합의 현장>에서는 함평 나비축제와 천안 세계연꽃축제, 군위 인각사의 삼국유사 문화제 등 각 지역의 대표적인 축제 30여 개를 소개한다. 축제의 유래와 주요 행사, 발전 전망 등 지역축제에 관한 정보를 알차게 담았다.



■ <칠보연못에 꽃향기되어> (이종린 지음, 견아사, 7천원) = 홍익소아과외원 이종린 원장이 월간 <불광> 웹진(http://bulk.wang.org)에 게재했던 '사모곡(思母曲)'을 책으로 엮었다. 지난 해 돌아가신 어머니를 그리며 쓴 글과 어머니가 생전에 쓴 일기, 가족의 추억이 담긴 사진도 함께 실었다. 지은이는 "저의 뉘트는 통탄을 보고 많은 분들이 어머니 은혜를 알기 바란다"고 출간의의를 밝혔다.



해체주의와 연기법 뭐가 닮았나

아주 특별한 만찬

김숙경 지음 | 아름다운인연 | 1만원

우선, 책의 표지를 살펴보자. 20세기 대표적 인 과학자인 아인슈타인과 스티븐 호킹, 해체주의 철학자 자크 데리다, 비디오 아티스트 백남준, 조선시대 실학자 최한기 그리고 도가사상의 호시인 노자가 함께 앉아 있다. 시대와 분야를 넘나드는 이들은 왜 한자리에 모여 앉았을까?



김숙경 씨의 '아주 특별한 만찬'에서 함께 '놀이마당'을 펼친 사람들을 지은이가 직접 그렸다. 각목 스님을 중심으로 시계방향으로 아인슈타인, 김숙경, 노자, 최한기, 백남준, 자크 데리다, 스티븐 호킹.

이들을 불러 모은 사람은 <아주 특별한 만찬>의 지은이 김숙경 씨(문화비평가, 대학에서 조소(彫彫)를 전공했지만 언제부터든 조각도 대신 책을 들고 '사상적 방랑'을 시작한 지은이는 책에서 이들과 함께 '문화놀이' '역사놀이' '과학놀이' '예술놀이' '철학놀이'를 펼치고 있다. 이 놀이의 목적은 '서양의 해체주의와 불교의 연기사상이 어떻게 같고 다른가'를 살펴보는 것이다.

시공 뛰어넘어 지구촌 위인들과 각목 스님·저자가 펼치는 놀이마당

중심사상의 폭력성을 해체하고 평등한 관계를 드러내는 해체주의와 절대평등을 기반으로 하고 있는 불교 연기법의 공통점을 찾아보는 과정인 셈이다. 철학적 개념을 분석하고 비교하고 있지만 이 책은 어렵지 않게 읽힌다. 소설과 가담담을 비롯해 시나리오, 편지글 등 다양한 형식으로 꾸며진 '놀이마당'은 책의 주제를 직접적으로 언급하지 않으면서도 그 개념을 쉽게 이해하게 해 준다.

이러한 결론을 불교는 이미 처음부터 가지고 있었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해체주의'에 그림자처럼 따라붙는 '허무주의'란 비판에 대해서 불교는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 이에 대해 각목 스님은 "해체 뒤에 남는 것은 허무가 아닌 실천"이라고 답한다. "중심의 해체, 즉 본질의 해체는 현실세계를 지배하는 절대기준의 잣대를 해체하기기도 합니다. 따라서 나와 남은 상호연기의 법칙으로 얽혀있으므로 자연히 남을 위해 살아갈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지은이는 놀이를 마치며 "진정한 자유는 평등 속에서 실현될 수 있다"는 결론을 내린다. "이론과 실천은 따로 떼어 생각할 수 없습니다. 이 책을 통해 진정한 자유는 너와 내가 따로 있지 않다는 평등사상에서 출발해야 한다는 것을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여수령 기자 snoopy@buddhopia.com

1200년전 티베트 밀법 수행과정 '생생'



예세 초결 예세 초결 지음 설오 스님 옮김 김영사 | 1만7천9백원

지금으로부터 1200년 전 만년설로 뒤덮인 히말라야의 땅 티베트에 한 여인이 있었다. 아름다운 외모 때문에 제후들의 정략 대상이 되어 마침내는 왕후가 됐다. 하지만 불교의 지혜를 티베트에 전한 '파드마 삼바바'의 가르침으로 밀법을 수행하고 그의 영적인 아내(칸들마)이자 수행 동반이 된다. 그녀가 바로 이 책의 주인공인 예세 초결이다.

그는 제자에게 자신의 전기(傳記) 세 부를 쓰도록 하여 아무도 모르는 은밀한 장소에 숨겨 두었다. 이 책들은 그의 예언대로 거의 천 년이 지난 17세기에 펄른 딱사삼렌탕빠가 발굴해 세상에 알려지게 됐다. 영미권에서는 몇 권의 번역본이 출간됐으나, 국내에 소개되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예세 초결의 많은 업적 중으로 꼽는 것은 사원 건립과 승가 교육 체계의 확립을 들 수 있다. 또한 마지막까지 제자들을 지도하고 근기를 성숙시켜 구원으로 밭을 전수한 것을 들 수 있다. 그래서 이 책을 읽다보면 티베트에 불교가 전래되고 정착되는 과정을 한눈에 알 수 있다.

그렇다고 이 책이 자칫 지루할 수도 있는 역사적 사실만을 나열하는 것은 아니다. 예세 초결의 일화와 고행담, 수행을 성취하는 과정과 중생을 교화한 내용을 아름다운 시와 노래로 드라마틱하게 들려 주기도 한다. 단전에서 열을 일으키는 수행을 위해 설산의 바위 동굴에서 천 한 조각만 걸치고 용맹정진하는 것, 구입(口業)을 정화하기 위해 밤낮으로 만트라 수행을 하여 이듬달고 지치지 않는 음성을 얻는 것 등 중생과 함께 호흡하며 부처의 모습으로 살다 간 예세 초결의 다양한 밀법도 만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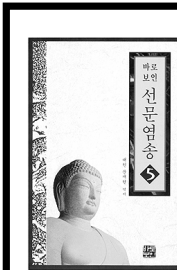
김주영 기자 jkim@buddhopia.com

금주의 베스트북서 10

책방 역시 아문 집계

Table with 4 columns: 순위, 도서명, 저·편자, 출판사. Lists top 10 books including '홀로 사는 즐거움', '마음 부처가 사는 나라', etc.

도서 안내: (02)737-0695



세계 최대의 공안집 선문염송! 전장 선사님의 인가제자인 대원 문제현 선사님이 역제한 <마보보인 선문염송> 전 30권 중 제 5권 출간! 1,454자의 본 공안, 매 척마다 취모건을 꿰뚫어 공안 탐구의 깊이가 역량을 하고 있다.

Daewon Buddhist Academic Institute 2004 대원불교대학 · 대학원 신입생 모집요강 수강생 전원 장학 혜택(무료) 2년제 야간강의

대원불교대학은 동국계(주) 창업주이며, 불교방송 개국의 모태인 (재)대원불교진흥원 설립자이신 대원 장경호 거사의 불교 대중화의 원력에 따라 전액 장학 혜택을 주는 불교계 최초의 교양대학입니다.

- 1. 모집과정: 과정, 학과, 모집인원, 과정, 학과, 모집인원
2. 대학원 지원자격: 1) 학사학위 이상 취득자 또는 취득 예정자. 2) 불교교양대학 수료자. (미 수료자는 대학과정 과목을 이수해야 함)
3. 대학 지원 자격: 1) 체계적인 불교공부를 원하는 자. 2) 신도에게 수지자. (미 수지자 수계 서약서 제출)
4. 전형일정: 1) 원서교부: 2004년 5월 17일 ~ 8월 10일까지 2) 원서접수: 2004년 5월 20일 ~ 8월 13일까지
5. 전형방법: 대학과정 (서류 전형 후 합격 발표일 개별통보) - 대학원과정 (서류 전형 및 면접시험 실시) - 일시: 2004년 8월 14일 (토) 14:00시 - 장소: 본 대학 교실의 (단, 학사학위 미소지자는 학원 계획서를 토대로 면접하여 수능능력을 평가함)
6. 제출서류: 1) 주민등록등본, 입학원서 (본교소정양식) 1부 2) 수계증 사본 또는 수계 서약서. 3) 학업 및 연구 계획서 1부 (대학원 과정) 4) 합격자 졸업(예정) 증명서 1부 (대학원 과정)
7. 지원자 유의사항: 1) 제출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2) 합격생은 전액 장학 혜택이 주어짐. 3) 월 2회 이상 무단 결석 시 제적처리. 4) 신입생 오리엔테이션 불참 시 합격 취소. (통신 과정도 전원 참석)

- 8. 각 과정 졸업 사항: 과정, 학과, 사정내용
9. 대학원 과정 특징: 1) 개인지도교수제 (Tutorial System)를 통한 철저한 개인별 지도를 합니다. 2) 지도교수 인솔로 해외불교학술답사를 통하여 세계불교학의 흐름을 접합니다. 3) 대학원 과정 졸업자는 미래학불교학회 임회 자격이 부여되며, 연구 및 강의 활동을 할 수 있습니다. 4) 소정의 수련 과정 이수 후, 박사자격을 부여합니다.
10. 입학식 및 신입생 오리엔테이션 (대학 및 대학원 과정 모두 해당) - 일시: 2004년 8월 25일 (수) 오후 6시 - 장소: 대원불교대학 큰 법당
11. 전임 교수진 및 담당 교과목: 정취목 교수 - 부산대학교 회학과 졸업, 동국대학교 불교학과대학원 석사, 일본 동경대학교 대학원 인도철학과 석·박사과정 졸업. 지도교목: 정토사상, 화엄사상, 중국불교사상사, 한국불교사상사 등
허경우 교수 - 서울대학교 물리학과 졸업, 동국대학교 석·박사과정, 인도 바라나시 힌두대학교 박사 과정 수료. 지도교목: 인도불교사, 구사학, 경전성립사, 대승불전장독 등
김사연 교수 - 서울대학교 영문학과 졸업, 동국대학교 석·박사과정 졸업, 일본 국립경고대학교에서 인도철학 연구. 지도교목: 중관학, 유식학, 여래장사상 등
김중국 교수 - 동국대학교 불교학과 졸업, 서울대학교 대학원 철학과 석·박사 과정 졸업. 지도교목: 비교종교학, 불교와 철학, 불교윤리학, 현대사회와 불교 등
최봉수 교수 - 동국대학교 불교학과 졸업, 동 대학원 석·박사 과정 졸업. 지도교목: 불타론, 초기불교연구, 초기불전장독 등
12. 정규교과과정: 1학기, 2학기, 3학기, 4학기
13. 초점특강: 초점특강은 불교현장과 연계된 교과목들 과목당 2회 이상 4회 이하로 편성되어 있으며, 해당 전공 과목을 심습하고 답사위주의 현장교육으로 학기 중 주말이나 방학 중에 실시된다.

(140-190) 서울시 용산구 후암동 358-17 TEL 02)773-9171, 754-1613 FAX 02)771-6796 www.idaewon.or.kr